

47년 창립 ... 정회원만 전국에 1천6백88명 대한안과학회

1947년 20여명의 발기로
창립된 대한안과학회는
반세기가 넘는동안 매년 봄·가을에
학술대회를 열고 학회지도
월간으로 발행하는 등
1천6백88명의 회원들이 뭉쳐
왕성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회업무는 현재 이사장 중심제로
총무, 편집, 재무 등
9명의 상임이사들이 제반업무를
소관사항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의술 중에서도 눈을 다루는 안과는 극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미국에서 전문의 제도가 시행될 때 가장 먼저 전문 과목으로 분리된 것이 안과이다.

눈은 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이 작은 눈에서도 해부학적인 각 부분에 따라 그 구조와 기능이 다르고 복잡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현대의 안과는 더욱 더 세분화되어 안과학회 안에도 외안부, 안성형, 백내장 굴절, 녹내장, 사시 소아안과, 망막, 콘택트렌즈, 안병리 등의 7개 분과학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의 진료도 이와 유사하게 전문분야에 따라 진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안과진료의 첫 기록은 18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한말에 처음 들어온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혜원(뒤에 제중원)에서 안과 진료와 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00년에 갑오경장으로 등장한 국립병원인 내부병원의 후신인 광제원에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가 설치되어 진료하였다.

물론 당시의 의료진은 외국인들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 안과 의

사가 된 분은 19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면허를 받은 홍석후선생이다. 1907년 광제원에서는 관립 의학교를 졸업한 의사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루었는데 시험 과목은 해부학, 생리학, 약물학, 내과학, 외과학, 안과학의 여섯 과목이었다.

89년 아·태 학술대회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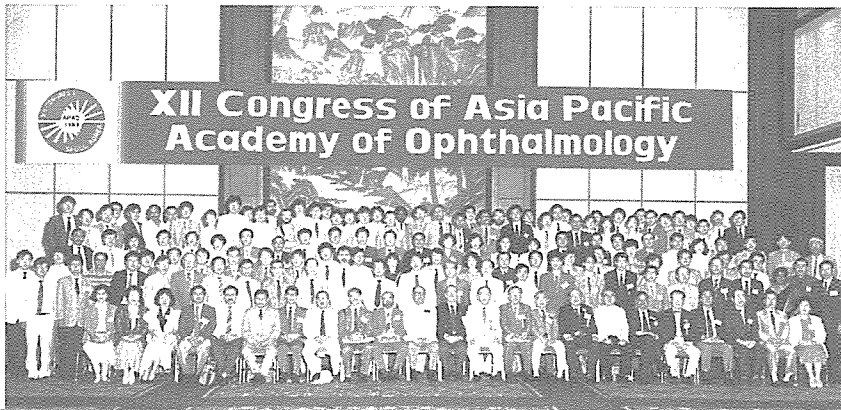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점이후 1922년 '조선 교육령'이 선포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대학이 설립되고 의학 교육도 체계를 갖추에 따라 다수의 안과 의사가 배출되면서 경향 각지에 안과 의원이 늘기 시작하였다.

일제 치하에서의 학회 활동은 일본인이 주도하는 '조선의학회'의 일부로

존재하였고 조선 사람끼리 '조선 의보'라는 것을 만들었으나 탄압이 심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다.

광복 이후 서울의대 초대 교수 윤봉헌, 연세의대 초대 교수 최재유, 고려의대 초대 교수 김희준선생 등이 주축이 되어 윤원식, 최창수, 손정균, 이명수, 홍승민, 김선준선생 등 20여명으로 1947년 11월 1일 대한안과학회를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은 윤봉헌교수(서울의대), 총무는 윤원식교수(서울의대), 학술부장에는 홍승민교수(전남의대)였다. 제1회 안과학술대회는 1949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20여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이후 1967년까지는 연 1회 가을에 학술대회를 열다가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1968년부터는 봄에는 지방에서, 가을에는 서울에서 연 2회를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발표되는 연제의 양과 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국제 학술활동도 1970년 국제안과학회 가입을 시작으로 1989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안과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외국 안과 의사 5백50명을 비롯하여 1천2백명이 참석하여 2백86연제가 발표됨으로써 국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안과학회 학술대회 기념사진(1989. 5. 31~6. 4, 서울 힐튼호텔)



丁海崙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제적으로 한국 안과의 수준을 높인 이후 최근에는 각 분과학회 나뉘어 앞다투어 국제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9명의 상임이사들이 운영

학회지는 1958년에 창간호를 내었는데 당시의 제목은 「안과학회 학술지」로 하였으나 1962년 「대한안과학회잡지」란 제목으로 바꾸었으며 처음에는 연 1~2권을 발간하다가 1968년부터 계간이 되었고 1990년부터는 월간으로 내고 있으나 점점 증가하는 논문으로 인하여 현재는 과포화 상태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중에 있다. 그리고 영문 학술지로서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를 발간하여 국제적으로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안과학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SCI 등재도 노력중이다.

안과학회의 업무는 현재 이사장 중심체로서 총무, 고시, 수련, 기획, 학술, 재무, 편집, 보험, 의무 등 9명의 상임이사들이 학회의 제반 업무를 소관 사항에 따라 처리하며 매월 1회의 정기 상임이사회를 열어 심도있게 토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상임이사회와는 별개로 상설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상설 위원회로는 윤리 위원회, 의약분업 대책 위원회, 용어 제정 위원회, 고시 위원회, 수련 위원회, 학술 위원회, 편집 위원회, 기획 자문 위원회, 전산 정보 위원회, 보험 위원회, 의무 위원회 등이 있고 임시 위원회는 신기술 대책 위원회 등으로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성되는데 각 상임이사들이 소관 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되거나 간사가 되어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며 그 자격은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정회원, 안과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준회원으로 하는데 현재 정회원의 수는 1천6백88명으로 개원의와 봉직의의 비율은 대략 반반이다.

반세기 남짓한 우리나라 안과의 역사에서 학회의 변천과 발전에 더하여 학문이나 진료에서의 발전은 엄청나고 눈부실 정도이다. 태동기와 초기를 거쳐 60년대와 70년대는 점진적인 발전과 내실을 다져가는 정립의 시기였다면 80년대 이후 최근 20년간 국내외의

안과학의 발전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80년대 들어서 바뀐 백내장 수술방법이 90년대에는 초음파유화술이 보편화 되었고 이것도 점점 더 작은 절개창을 통하여 수술하려는 노력으로 여념이 없다.

한편으로는 유리체-망막수술의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여 옛날에는 치료할 엄두도 못내던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이저수술 장비와 기술의 발달로 요즘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굴절수술(근시 교정술)이 보편화 되고 있고, 녹내장 분야에서도 안압을 내리는 새로운 약물들이 속속 개발되어 나오고 있고, 안성형 분야의 발전도 옛날에 해결하기 힘들었던 질환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 안과학도 기초의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아졌고 그 욕구도 왕성하여 선진수준의 연구업적들이 가시화되면서 임상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 수준을 더욱 높이고 뛰어 넘기 위해 우리 안과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㉞